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심의총평

2025. 04. 01.

심의위원장

조재경 (성명)

심의위원

김지영 (성명)

심의위원

고승훈 (성명)

심의위원

이태일 (성명)

#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심의총평

2025년 경기유아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도내의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교육단체 그리고 기초재단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와 기간의 지원은 경기도내 유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심의를 통해 5개 기관/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문화예술교육의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술과 교육의 간극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서부터가 교육일까의 경계에서 '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콘텐츠'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접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기존 성인이며, 전문예술교육을 수혜 한 예술강사들의 눈높이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현장의 유동성'과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2025년 심의의 기준은 주제의 적합성, 기관 단체의 운영역량과 계획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를 만나기 위한 예술가의 준비 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본 사업을 통하여 예술가와 단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유아들을 대상화시켜 일방적인 학습형, 정보 제공형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유아들과 예술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유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술가들 본연의 작업이 살아나는 활동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회차별 교육 구성과 예술과 놀이와의 연계성 및 운영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유아 특성을 고려하되 주제나 표현방식에 있어 다양한 감각/감정의 복합성이 더해진 과정이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참여 유아를 창작의 주체로 인식하여 공동의 창작자로서 고민을 열고 강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프로그램인지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한 예술가(교육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참여자와 함께 풀어가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유아를 만나려 하는지 듣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아를 공동의 창작자로서 존중하고 다가가기엔 어려움이 있는듯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행 가능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인 수행능력이 보다 면밀하게 충족되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장의 유동성'이 무계획이 아닌 보다 세밀화

된 계획의 연장이 될 수 있는지여부는 이러한 사전 계획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깊은 고민은 오히려 예술교육과 멀어지게 만드는듯 합니다. 유아와 '함께'하는 경험과 연구의 시간을 보내며 모두에게 차츰 자신감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술가 본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유아의 시선-입장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유아와 '그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는 시도가 경기도 전역에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2025년 유아와 예술가 그리고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기 유아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적극 응원합니다.

2025. 4. 1.

심의위원 조재경, 김지영, 오승희, 이태일